



보도 일시	2022. 9. 30.(금) 10:00	배포 일시	2022. 9. 30.(금) 08:00
담당 부서 <총괄>	예산실 예산관리과	책임자	과 장 윤수현 (044-215-7190)
		담당자	사무관 박성준 (bbakko0@korea.kr)
			사무관 남기인 (nki1213@korea.kr)
			주무관 정사랑 (srareum@korea.kr)

제10회 한-OECD 국제재정포럼 개최 결과

- 최상대 차관, 재정준칙·교부금 개편 등 한국의 재정개혁 노력 역설 -
- OECD 주요국 재정전문가, 한국의 재정준칙 필요성 강조 -

- 기획재정부는 KDI·OECD와 공동으로 9.29(목)~30(금) 양일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10회 한-OECD 국제재정포럼을 개최하였다.
 - ‘코로나19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’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, 안일환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, 고영선 KDI 원장 직무대행 등 국내 인사와 캐리-앤 존스(Kerri-Ann Jones) OECD 사무차장, 마크 로빈슨(Mark Robinson) OECD 선임고문, 배리 앤더슨(Barry Anderson) 前 미국 예산관리국(OMB) 부국장 등 해외 인사가 참석하였다.
- 최상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재정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제도 정비 등 재정개혁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,
 - 새정부 출범 후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면 전환, 재정준칙 법제화, 교육 교부금 개편 등 한국이 추진중인 다양한 재정개혁 노력들을 알렸다.
 - 또한, 정부재원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채의 안정적 발행과 국채시장 선진화를 위해 세계국채지수(WGBI) 가입을 추진 중임을 언급하고,
 - 중장기 시계에서 한국 재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재정전략 「재정 비전2050」을 수립할 계획이며 내년 개최될 OECD 글로벌 재정협력 등 회의에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.

- OECD는 최근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등에 따른 재정규율 강화 효과를 높이 평가*하고 있으며, 캐리-앤 존스 OECD 사무차장도 환영사를 통해 한국이 재정준칙 도입 등 여러 재정개혁을 바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.

* "정부는 최근 재정준칙에 대한 재설계안을 발표하였고, 이는 환영할만한 조치 ...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하고 법률안에 근거를 담아 구속력을 강화"(OECD, '22.9.19)

- 이어진 발표·토론 과정에서 마크 로빈슨 OECD 선임고문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며 향후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총량을 통제·관리할 수 있는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,
- 배리 앤더슨 前 미국 예산관리국(OMB) 부국장, 더글라스 서더랜드 (Douglas Sutherland) OECD 경제부서 구조감시체제 부장 등은 재정준칙은 매우 효과적이고 유효하다고 언급하면서 단순한 형태의 재정준칙, 재정준칙 법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,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등 재정개혁 노력에 대해 지지를 보냈다.

【 세션별 주요 발표·토론 내용 】

- 첫 번째 세션에서는 ‘코로나19 이후의 재정여건과 재정준칙’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.
- 마크 로빈슨 OECD 선임고문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·보건·연금·장기요양 등의 분야에서 재정수요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지출규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.
- 기획재정부 강영규 재정기획심의관은 보다 단순하고 구속력 높게 설계한 우리의 재정준칙 도입방향을 소개하며, 재정준칙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.
- 이에, 배리 앤더슨 前 미국 예산관리국(OMB) 부국장은 재정준칙은 여러 국가에서 도입·시행중이고 국가채무의 악화를 예방하는 가장 유용한 방안이라고 덧붙이며, 법제화 등 재정준칙이 준수 될 수 있는 메커니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.

- 한편, 김학수 KDI 재정·사회정책 연구부 선임연구위원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, 재량지출 추가통제 등 단계별 재정개혁병행을 통해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이 대폭 개선가능하다고 예측하며 중장기 시계에서의 근본적인 재정개혁을 강조하였다.
- 두 번째 세션에서는 ‘친환경예산과 탄소중립 목표의 미래’를 주제로 포럼 참석자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.
 - 앤드류 블레이지(Andrew Blazey) OECD 공공관리예산 부부장은 OECD 국가들의 친환경예산에 대해 분석한 결과 기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순환경제·공정전환 등 탄소중립 관련 이슈에 대한 예산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.
- 세 번째 세션에서는 ‘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’을 주제로 지출검토(Spending Review), 사회서비스 민관파트너십, 공공기관 개혁 등 다양한 지출효율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.
 - 특히, 알프룬 트리그바도티르(Alfrun Tryggvadottir) OECD 지출검토제도 총괄은 강력한 지출검토를 통한 지출재구조화를 예산과정의 일부분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.
- 기획재정부는 금번 포럼을 통해 논의된 OECD 주요국 재정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재정준칙 법제화, 교육교부금 개편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노력들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예산실 예산관리과	책임자	과 장	윤수현 (044-215-7190)
		담당자	사무관	박성준 (bbakko00@korea.kr)
			사무관	남기인 (nki12130@korea.kr)
			주무관	정사랑 (srareum@korea.kr)
<재정준칙>	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	책임자	과 장	윤범식 (044-215-5740)
		담당자	사무관	강도영 (ara8524560@korea.kr)

참 고

제10회 국제재정포럼 일정 (안)

일 시		상세 프로그램
9.29 (목)	9:00 ~9:30	등록 및 네트워킹
	9:30 ~10:30	개회식 - 2차관 개회사, OECD 사무차장 환영사 등
	10:30 ~12:00	(세션1)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건과 재정준칙 발표 1: 포스트 팬데믹 시대 도전적 재정 여건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2: OECD가 직면한 도전적 재정 여건 Marc Robinson, OECD 선임고문 발표 3: 한국형 재정준칙 강영규 기획재정부 재정기획심의관 발표 4: 재정준칙의 유용성 Barry Anderson, 전 미국 예산관리국(OMB) 예산부국장 토론 :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, Douglas Sutherland OECD 부장, Simon McLoughlin 주OECD뉴질랜드대표부 경제참사관
	13:30 ~15:00	(세션2) OECD 국가들의 친환경 예산과 탄소중립 목표의 미래 발표 1: OECD 국가들의 친환경 예산(Green budgeting) Andrew Blazey, OECD 공공관리예산 부부장 발표 2: 탄소중립 목표의 실현가능성과 향후 진화 방향 Ken Cleary, 아일랜드 공공지출·개혁부 기후변화 총괄 토론 : 정희철 기후환경예산과장, Peter Johnson 주OECD호주대표부 공사참사관
	15:30 ~17:30	(세션3)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 발표 1: 지출검토(Spending review) 제도 Alfrun Tryggvadottir OECD 지출검토제도 총괄 발표 2: 사회서비스 분야 민·관 협력(PPP) 사례 Marten Blix 전 스웨덴 재무부 국장 발표 3: 공기업 및 공공기관 개혁 Hans Christensen OECD 기업지배구조 부부장 대행 발표 4: 성인지 예산 Jon Blondal OECD 공공관리·예산부장 토론 : Helene Durocher 주OECD캐나다대표부 참사관, Vicky Rock 영국 하원 국장, Efi Tsanti 그리스 재무부 국장
9.30 (금)	9:30 ~11:30	(패널 토론)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발표: OECD의 지출효율화 방안 소개 Jon Blondal, OECD 공공관리·예산부장 토론 :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 Barry Anderson 전 미국 예산관리국(OMB) 예산부국장 Douglas Sutherland OECD 부장, Simon McLoughlin 주OECD뉴질랜드대표부 경제참사관 Efi Tsanti 그리스 재무부 국장, Vicky Rock 영국 하원 국장 Peter Johnson 주OECD호주대표부 공사참사관
	11:30 ~12:00	폐회식(폐회사 등)